

2010 AAAAI annual meeting 참석 후기

김상헌

한양의대 내과

2010년 AAAAI annual meeting은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미국남부 루이지애나주의 가장 큰 도시인 뉴올리언즈에서 열렸다. 뉴올리언즈는 미시시피강이 멕시코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 이전의 남부의 플랜트산업 등이 활발할 때 함께 번성하였던 도시라고 한다. 따라서 흑인이 많고, 재즈로 유명한 도시이지만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큰 피해를 입어 더욱 쇠락해진 이미지를 가진 도시이다. 올해 ATS와 함께 학회를 개최하게 된 것도 컨벤션과 관광을 통해 뉴올리언즈의 재건을 도우려는 미국인들의 선택으로 추측된다. 개인적으로는 학회기간 동안 남부의 따뜻한 햇살과 느긋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기대하였으나 중심가에서 몇 블록만 벗어나도 버려진 건물들이 황량한 느낌을 전해주고, 날씨가마저 예상보다 춥고 그리 좋지 못하여 그야말로 공부에 매진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지 않았나 싶다.



그림 1. 뉴올리언즈 전경 (다리 북단의 오른쪽 건물이 convention center임)

학회 발표에 따르면 올해에는 약 8천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명의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 각과 교수들과 전임의, 전공의들이 구연과 포스터발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현재 미국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연수 중이신 유진호 선생님(울산의대 소아과)과 덴버 National Jewish Health에서 연수 중이신 신유섭 선생님(내과)께서도 참석하시어 연구결과를 발표하셨다.



그림 2. 2010 AAAAI annual meeting이 열린 convention center 입구

올해 학회에서 Plenary session은 “Pharmacogenetics: Phenotyping for Treatment”, “Climate Change, Air Pollution & Allergic Disease”, “The Path to Immunologic Tolerance”, “Pathways to Asthma” 등의 제목으로 강의를 있었고, 주목할만한 Keynote session에서는 최근 hot topic인 microRNA를 천식 마우스모델에서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보여준 작년 PNAS 논문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자랑스럽게도 아주의대 박해심 선생님께서는 심포지엄 연자로서 “The genetics of aspirin-intolerant asthma”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셨고, “immunosurveillance program for the workplace”라는 제목의 Q & A workshop session의 좌장 역할을 훌륭하게 하셔서 우리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셨다.



그림 3. 심포지엄에서 발표중인 박해심 교수님

학회에서 매년 느끼는 것인데, 마치 뷔페식당에서처럼 매우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발표가 같은 시간에 다발적으로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한다는 긴장감을 갖게 된다. 같은 기간 같은 학회를 경험했더라도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보고들은 바가 크게 다르겠지만 내가 관심있었던 session은 AAAAI의 각 Interest Section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forum이었는데 이는 최근 우리학회에서 시도되고 있는 working group과 유사한 형태인 듯 하였다. 그 중 하나인 Mechanisms of Asthma and Allergic Inflammation (MAAI) Interest Section에서는 최근 알레르기 기전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논문을 발표했던 저자들이 관련 내용을 발표한 것이 관심을 끌었다. 특히 작년 Nature Immunology에 “Basophils function as antigen-presenting cells for an allergen-induced T helper type 2 response”라는 논문의 제1저자였던 Dr. Sokol (MGH)과 2008년 Nature에 “Crucial role for the Nalp3 inflammasome in the immunostimulatory properties of aluminium adjuvants”라는 논문의 제1저자인 Dr. Eisenbarth (Yale Univ.) 등의 강의를 깊은 인상을 주었는데, 이들이 예상보다 매우 젊은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순간 충격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꼈다. Forum 중간에는 Business meeting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총회를 하였는데, Interest Section의 연간 계획과 모임일정을 정하고 젊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자는 토론을 하는 것이 우리와 비슷하여 재미있었다.



사진 4. 학회 마지막 날 학회장에서 국내 참석자들과 함께

굳이 AAAAI에서 구연발표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 게으른 탓에 초록 마감시간을 놓치고 Late Breaking Abstract에 초록을 낸 탓으로 구연발표를 하게 되었다. (Late Breaking Abstract에 초록을 내시는 분들은 100% 구연임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란다.) Late는 맞는데 그다지 Breaking하지는 않은 초록이 얼떨결에 채택된 탓에 학회 마지막 날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영어발표는 어렵고 두렵다.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면 기껏해야 영어가 원어가 아닌 유럽학회에서의 경험밖에 없어서 영어 구연발표는 피하고 싶은 스트레스 그 자체이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많아지면 좀더 나아지려니 기대를 가져보지만, 실력이 늘기보다는 좀더 뻔뻔해지는 것만 같다. 다음 학회에서는 좀더 여유 있게 발표도 잘 하고 다른 연자들의 강의와 발표들을 더 즐길 수 있기를 바래본다.